

‘한국의 파리나무십자가’를 꿈꿉니다

광주평화방송 피아트 도미니 소년합창단 창단

초등 2~중1 30명으로 소박한 출발
가톨릭 성음악·소외 이웃 찾아 공연
매월 둘째 토요일 북동 성당 미사 봉헌
21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창단연주회



21일 창단연주회를 갖는 광주평화방송 피아트 도미니 소년합창단.

아름다운 화음을 선사하는 합창은 듣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특히 어린이들이 때문이 아니다. 청아한 목소리로 들려주는 합창은 감동의 깊이가 더해지는 듯하다. 소년소녀합창단의 화음도 좋지만, 소년들로만 구성된 합창단은 또 다른 느낌을 준다.

1907년 창단된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은 정통 성가곡 뿐 아니라 각종 클래식 음악, 세계 각국의 민요와 가곡 등을 통해 전세계인들에게 아름다운 화음을 전하고 있다.

지역에서 ‘한국의 파리나무십자가’를 꿈꾸며 소박하게 첫발을 내딛은 소년합창단이 눈길을 끈다. 광주평화방송 피아트 도미니(Fiat Domini·주를 따르라) 소년합창단(단장 김희향 광주평화방송 사장 신부)이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1일 창단연주회(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를 준비중이다.

광주평화방송은 1997년부터 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했지만 2009년 없어서 아쉬움

이 컸다. 잠시 휴지기를 가진 평화방송은 지난해 10월 소년합창단을 구성했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소년합창단은 명동성당의 합창단이 유일했다. 지역의 경우 어린이 합창단에 소년들도 참여하고 있지만 숫자가 워낙 적어 그 역할이 미미했다.

단원들은 초등학교 2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3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가톨릭 신자로 구성된 단원들은 매주 토요일과 수요일 가톨릭평생교육원에서 연습을 해왔고 올 1월 7일 천주교광주대교구 사제 서품식에서 첫 선을 보였다.

피아트 도미니는 가톨릭 교구 행사에 참여 ‘성음악 전도사’ 역할을 한다.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북동성당에서 ‘그레고리오 성음악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터블러 병원 등 지역 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찾아 노래를 통해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도 꾸준히 진행하려 한다. 지

난 9월에는 화순전남대 병원을 찾아 공연을 열기도 했다.

“소년소녀들이 함께 어우러져 노래하는 것도 좋지만 소년들의 보이소프라노는 매력적인 소리입니다. 훨씬 고운 소리를 낼 수 있죠. 가톨릭 전례에 참여해 노래하는 걸 기본으로 하지만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활동도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불러주시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야죠.”

한덕희 배나시아 지도수녀는 “파리나무십자가처럼 되고 싶은 건 우리의 로망”이라며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첫 걸음을 땀만큼 많이 격려하고 응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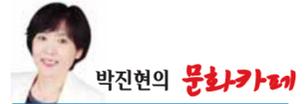
창단 멤버로 참여한 한준혁(용산초등학교 5학년)군은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고, 노래할 때마다 행복해 합창단에 들어가게 됐다”며 “하얀 옷을 입고 노래할 때면 마음도 깨끗해지고, 남들 앞에서 노래하는 것도 행복하다”고 말했다. 준혁군은 또 “화순 전남대

병원에서 공연할 때 암환자들이 있어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환자분들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한편 백정빈 모니카씨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공연 레퍼토리는 성가곡과 동요, 크리스마스 캐롤, 오페라곡 등으로 구성했다. 그레고리 성가 ‘시온의 백성아’, ‘성모송’과 ‘오늘 그리스도 나셨도다’, 동요 ‘어린 왕자’, ‘아이들이 꿈꾸는 세상’, 모차르트의 ‘자장가’, 험퍼딩크의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중 ‘저녁에 제가 자려고 누우면’, ‘오 거룩한 밤’, ‘천사의 캐롤’ 등을 들려준다.

또 배나시아 수녀와 김규리씨가 오르간과 리코더 연주를 들려주며 실내악단 ‘바로크 솔리스트’(박신영·정수지·문지환·이후성·김수연)이 찬조 출연, 비발디의 ‘바산 콘체르토 e단조’를 연주한다.

전석 초대로 광주평화방송에서 티켓을 무료 배부한다. 문의 062-231-77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데

며칠 전 ‘시립미술관 송년회’라고 제목이 붙은 이메일을 받았다. 반가운 마음에 이메일을 열어 보니 기대했던 것과 달리 살짝 실망(?)했다. 광주시립미술관이 미술관 로비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클래식과 국악 감상 기회를 제공하는 송년 음악회 보도자료였던 것이다. 내가 제목을 보고 설레었던 건 시립미술관에서 송년모임을 계획한 친구나 지인의 공지이메일을 상상했기 때문이다. 시립미술관의 송년 음악회 행사 보다는 민간 단체나 개인들이 자체적으로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전시를 감상하며 뜻깊은 한해를 보내는 문화송년회 말이다.

입에 한해서는 큐레이터가 가이드를 맡는 특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최고급 수준을 자랑하는 미술관의 레스토랑은 1시간 가량 떨어져 있는 워싱턴 D.C의 미식가들이 일부러 찾아올 정도다.

그렇다고 연말에만 반짝 특수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평상시에도 미술관은 가족들의 외식 나들이에서부터 비즈니스맨들의 사교모임에 이르기까지 인기가 높다. 이렇다 보니 송년모임이 많은 12월에는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사카고 아트 인스티튜트’(이하 인스티튜트) 역시 송년모임으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미천가지.

미술관 송년회

사실 광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송년모임을 갖는 문화애호가들이 많지 않다. 물론 근래 좋은 전시나 콘서트를 단체관람하는 것으로 송년회를 대신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아예 갤러리나 미술관을 통째로 빌려 한 해를 되돌아 보고 진목을 다지는 모임은 드물다. 하지만 문화선진국으로 불리는 미국이나 유럽은 미술관 모임이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연중 관람객들로 붐비는 미국 미술관의 경우 단체모임이 미술관의 재정에 큰 보탬이 될 정도로 대중화됐다.

특히 매년 12월이 되면 미국 미술관들은 분주해진다. 이유는 밀려드는 ‘단체손님’들 때문이다. 미술관에서 그림도 보고 식사도 하며 한 해를 갈무리하는 송년모임이 쇄도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미국 메릴랜드주 중심부에 위치한 볼티모어 미술관은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송년회 장소다. 미술관은 10인 이상 단체모

100~3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룸’이 7개나 되지만 12월엔 수개월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그림의 딱’이다. 인스티튜트는 ‘미술관 단체관람하는 것으로 송년회를 대신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아예 미술관을 모임장소를 대어주는 ‘컨벤션 마케팅’을 선보여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다. 밸런타인데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기념일엔 가족단위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도 벌인다.

미술관 송년회가 인기를 끄는 것은 미술품을 보면서 지인들과 함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색다른 체험’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교모임이나 송년회 하면 호텔이나 레스토랑에 둘러 앉아 술과 음식이 ‘그날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나라 송년회 풍경과는 사뭇 다르다.

한해의 고트머리인 12월, 미술관이나 공연장에서 송년의 아쉬움을 달래보는 건 어떨까? 분명 예술적 감동 못지 않은, 잊고 살았던 일상의 여유를 되찾는 시간이 되리라.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임방울 국악제 대통령상 수상자 송년음악회

내일 효령노인복지타운

임방울 국악제 역대 대통령상 수상자 송년음악회가 오는 17일 오전 10시 효령노인복지타운 공연장에서 열린다.

(사)임방울국악진흥회(이사장 김중재)가 주최하는 공연에는 진흥회가 운영하는 국

악교실 수강생들도 함께 참여한다.

첫 무대는 제23회 농악 일반부 대상을 수상한 새한대학교 전통연희학과(이동준·김선성·정의원·박진·김승호)의 풍물판국이 장식하며 대통령상을 수상한 박춘맹(2006년), 주수연(2004년), 김찬미(2005년), 서정민(2014년) 명창이 ‘춘향가’ 중 ‘속대머리’,

‘흥보가’ 중 ‘흥보 박 타는 대목’, ‘심청가’ 중 ‘만자맹인 눈을 뜬다’ 대목 등 판소리 다섯바탕의 눈대목을 들려준다.

또 아코디언 신동 이수연이 특별 출연해 ‘목포의 눈물’ 등을 선보이며 흥겨운 남도 민요, 가야금병창, 산조합주 등이 이어진다. 또 국악교실 수강생(판소리, 전통무용,



박춘맹 서정민
민요, 장고병)의 무대도 마련된다. 전석 무료.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예술위 ‘공연티켓 1+1 지원 사업’ 2월까지 연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연 티켓 한장을 사면 한장을 공짜로 더 주는 ‘공연 티켓 1+1 지원 사업’을 2월 말까지 지속한다고 15일 밝혔다.

1~2월이 공연예술계 비수기라는 점을 감안, 연초 관객 감소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결정이다. 문화예술위는 이에 따라 내년

1~2월 지원 대상작을 오는 18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연당 최대 지원액은 1억5000만원이며 한 공연단체당 최대 5개 공연(2015년 선정 공연 포함)까지 지원할 수 있다. 기존 선정 공연이 내년 2월까지 계속되는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연합뉴스

펜션·박물관 / 미술관·식당·찻집등

최고 장소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 산25번지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담양리조트 1분거리

▶ 대지 2441평, 건물 882평, 임야6726평

▶ 과거, 펜션 박물관 식당 찻집 운영(구/송학랜드)

▶ 관광특구로 모든 업종 개발가능 / 도 관광 진흥자금 유치 가능

▶ 현재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연2.1%, 월219만원)

▶ 1년후 약 18억 정도 재 대출 가능

▶ 법인체 인수시 이전비 1억 정도 절약

▶ 시세/감정가 30억 정도

▶ 매매 18억 8천만원(12/31일까지 완불 조건)

공동중개환영 H.010-3605-5000

펜션, 리모델링 후(약 2억정도) 연 2억이상 순수익 가능!